

『훈민정음』의 象形說과 六書의 관련에 대한 연구

양해승*

1. 서론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이 어느 문자의 계통을 이어 받아서 창제되었는지를 밝혀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강규선(1999)에 의하면 훈민정음에 관련된 기원설은 십여 가지나 있다. 강신항(2007)에 의해 1940년에 『훈민정음해례본』이 발견되었는데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以制之(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서 다른 문자로부터의 기원설을 주장하는 이가 줄게 되었다. 그래도 '象形'에 관련된 기원설이 존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五行象形說, 發音器官象形說, 脣舌作用象形說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漢字六書기원설을 주목할 만한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훈민정음해례본』을 연구해 보니까 '상형'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가 나왔는데 따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자해에서 '各象其形而制之', 訓民正音解例序에서 '象形而字倣古篆'이라는 말을 통해 제자의 근거를 밝힐 수 있는데 즉,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은 문자의 성격에 있어서 표의문자인 한자와는 다르나, 그 제자의 기본 방식인 '상형'은 한자의 기본 제자법인 '상형'과 '지사'를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한자를 제외한 당시의 주변 문자 가운데 상형의 원리를 제공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훈민정음 제자 과정에서 상형의 원리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한자와 가장 큰 관련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한자의 제자 원리인 육서 원리가 수용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보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관련된 관점은 벌써 유창균(1966), 안병희(1990), 안명철(2006)에서 논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각 학자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많이 달라 보인다. 이광호(1988)에 의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신제 28자' 와 '신제 자가 아닌 글자 39자를 합쳐서 67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출 처	구성 방식	예시
신제 28자	본문	상형, 가획	ㄱ, ㅋ, ㅇ,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본문	초/재출	·, 一, 丨, 丄, 丅, 万, 丆, ㄱ,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신제'자가 아닌 글자 39자	본문	각자 병서	ㄱ,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연서	ㄱㅇ
	초성해	1상 합자	ㄱ
		중성해	1상 합자 ㄱ,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ㅋ: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합자해	합용 병서	ㄱ,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연서	ㄱ ! ㄱ

본고에서 한자 육서 제자 원리를 결합해서 여러 학자의 주장을 재검토하면서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세워 보려는데 목적을 둘 것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나타난 글자들이 신제자인지 아닌지를 밝히며, 훈민정음에서 나온 글자는 어떤 육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은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1장에서 『훈민정음』의 상형설과 육서의 관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2장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육서' 기원설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검토하여, 3장에서는 한자 육서 제자 원리를 제시하면서 훈민정음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것이며, 4장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글 독창성과 우수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여러 학자들의 '육서' 기원설 견해에 대한 검토

1. 유창균(1966)

제자 방식	자/모음	예시
상형	초성의 기본자양 및 이체자양	ㄱ, ㄴ, 口, 人, 〇, 〇, ㄹ, ㄷ
지사	중성의 기본자양	·, 一,
회의	초성연서자 및 병서자	뫑, 풍, 몽, 뽕, 링, ㄱ,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ㅌ, ㄴ,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형성	중성연서자 및 합용병서 중 일부	!, ㄱ, ㅅ(아랫아 '·' 및 받침 'ㄹ'을 빼고 남는 부분)
가획	초성의 가획자양	ㄱ, ㄷ, ㅌ, ㅂ, ㅍ, ㅈ, ㅊ, ㅎ, ㅎ
가점	중성의 초출자와 재출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유창균(1966)은 처음에 한글 제자원리를 가지고 육서 제자원리와 비교연구해서 대응시키는 학자였다. 훈민정음의 '육서'기원설을 발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유창균(1966)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획', '가점' 방식은 실제로 '지사' 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따로 분류해서 개념의 혼란을 초래했다. 둘째, 형성 원리에 대응하는 한글에 대해 설명이 애매하고 불명확하다. 셋째, 초성연서자 및 병서자를 뫑땅 회의자로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2. 공재석(1968)

"이제 한글을 상형문자라고 함은 한자의 상형과는 구별 되어야 할 것이다. 한자의 상형지는 실제로 상형한 대상물이 무엇인가 그 그림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즉 ☉(日) ㉑(月) 등, 그러나 한글의 ㄱ, ㄴ, ㅁ, ㅂ, ㅇ 자들은 명확하게 이것이 어떤 물체를 지시하고 있는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호는 다만 발성에 있어서 그 작용시의 기관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한자와 같이 하나의 사물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음성의 발생 시 그 기관을 모상한 부호로 음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이 점에 있어서 지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공재석(1968)에서 훈민정음에서 나타난 '象形'은 한자 육서에서 나타난 '象形'과 다른 점을 지닌 점을 밝히면서 훈민정음은 한자 육서의 象形 제자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지사 제자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공재석(1968)에서 주로 '古篆起源說'에 주목하며 '起一成文圖'로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설명했다. '起一成文圖'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데 문제점은 모든 한글이 '指事' 제자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무리한 것 같다.

3. 김홍철(1980)

중국 漢나라 때 班固의 漢書에서 六書에 관련된 내용: "敎子六書: 謂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 造字之本也"을 인용해서 육서에 대해 새로 이해했다. 그리고 최현배선생님이 발견했던 史料를 이용해서 육서 기원설을 입증했는데, 즉 육서의 象形 원리가 정음 창제원리가 되었음을 주장한 것은 일찍이 英祖 때 사람 耳溪 洪良浩의 經世正音圖說序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안병희(1990)에서 유창균(1966)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육서 기원설을 구축해 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초성 획자가 형성자인가? 형성자는 자로서 합체자 이어야 되는데 초성가 획자가 아무래도 합체자로 보는 것이 무리한 것 같다. 그리고 병서자, 연서자 그리고 중성 합용자, 상합자를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고 이 글자들이 육서의 제자원리와의 관련성을 제외시켰다. 이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5. 문효근(1993)

"「文言傳」²⁾에서 '本乎天者 親上, 本乎地者 親下'라 했다.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ㄱ, 象舌根閉喉之形"이니, "口, 象口形"이니 "스, 象齒形"이니 하여, 그 형상 또는 그 특성을 본떠 만들었다 하겠으나, 중성에 해당하는 「·, 一, 丨」에 대해서는, "·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呼天也, 一 地開於丑也 形之平 象呼地也, 丨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라 하여, 「天-子-圓」「地-丑-平」「人-寅-立」과 관련시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더구나, "· 之貫於八聲者, 猶陽之統陰而周流萬物也"라 하여 또한 「·」를 앞세웠다. 그 밖에도, 「丨」를 두고는 「詠曰」에서 "洪出於天尙爲闔, 象取天圓合地平"이라 했다. 「文言傳」의 말대로 한다면, 또 『說文系傳』을 따른다면, 『訓民正音』의 「·, 一, 丨」은 許愼의 풀이대로 象形이라기보다는 차라리 指事에 가깝다."

문효근(1993)에서 『周易』의 관점을 인용해서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비교했다. 그리고 단지 초성기본자 「·, 一, 丨」를 육서의 지사 제자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더 자세히 다른 한글은 어떤 육서 제자원리를 의거해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2) 『周易』은 上經·下經 및 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十翼은 彖傳上下, 象傳上下, 繫辭傳上下, 文言傳, 說卦傳, 序卦傳, 雜卦傳 등 10편을 말한다.

으로 한자 육서와 훈민정음의 자소를 고찰하면서 훈민정음의 자소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런데 자음가획자, 이체자, 그리고 연서자에 관련된 육서제자원리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나온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에서 논술할 것이다.

III. 한자 육서 제자원리 및 훈민정음과의 관련성

1. 훈민정음에서 나온 '상형'이란?

훈민정음에서 나온 '상형'이란 무슨 뜻인가? 김홍철(1980), 안병희(1990)에 의해 그냥 문면으로 만족해서 '어떤 물건을 그려내는데 형체에 따라 꼬불꼬불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역사상 문자 학자들은 육서를 부르는 명칭부터 살펴야 될 것이다. 육서라는 개념은 많은 문자 혹은 운서에 관련된 책에서 나온 적이 있다.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시기	생존	저자	서명	육서명칭과 차례
東漢	32-92	班 固	漢書·藝文志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
東漢	?-114	鄭 衆	周禮·解詁	象形, 會意, 轉注, 處事, 假借, 諧聲
東漢	58-147	許 慎	說文解字·敘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
西晉	?-291	衛 恒	四體書勢	指事, 象形, 形聲, 會意, 轉注, 假借
南朝梁	519-581	顧野王	玉篇	象形, 指事, 形聲, 轉注, 會意, 假借
北宋	961-1017	陳彭年	廣韻	象形, 會意, 諧聲, 指事, 假借, 轉注
南宋	1104-1162	鄭 樵	通志六書略	象形, 指事, 會意, 諧聲, 轉注, 假借
...

김재완(2007)에 의해 '육서'라는 용어가 처음 보이는 저서는 주나라 때의 관제를 기록하는 『周禮』이다.

保氏掌諫王惡，而養國子以道，乃教之六藝° 一曰五禮，二曰六樂，三曰五射，四曰五馭，五曰六書，六曰九數°

보씨는 왕의 잘못을 간하고 도로써 공경대부들의 자제들을 교양시키는 일을 관장하였는데, 이들에게 六藝를 가르쳤다. 이 六藝의 첫째를 五禮, 둘째를 六樂, 셋째를 五射, 넷째를 五馭, 다섯째를 六書, 여섯째를 九數라고 한다.)

그런데 '육서'의 정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육서 정의를 밝히는 가장 일찍 나온 책은 東漢 때의 班固가 지은 漢書·藝文志란 다. 반고가 육서를 두고 象形, 象事, 象意, 象聲, 轉注, 假借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鄭樵의 通志六書略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六書也者 象形爲本(육서는 상형을 바탕으로 삼는다)", "六書也者 皆象形之變也(육서는 모두 다 상형의 변화로 나타난다)"란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에서 나온 '象形'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서에서의 '象形' 뜻이 아니라 육서의 근본을 대표할 수 있는 '象形'이라는 뜻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한자 육서 제자원리 및 훈민정음과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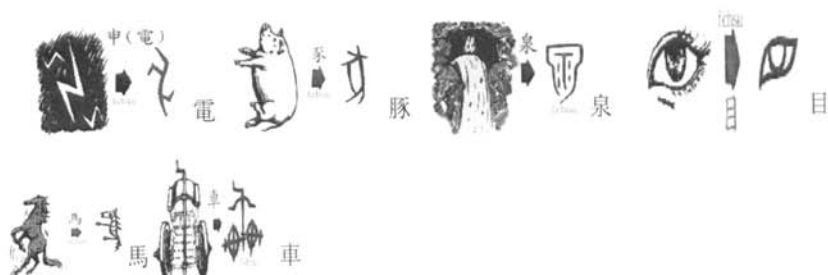
(1) 한자 육서 제자원리에 대하여

1) 상형

許慎의 說文解字·敍에 의해 "象形字，書成其物，隨體詰曲，日月是也"로 해석했는데 즉, 상형이란 어떤 물건을 그려내는데, 형체에 따라 꼬불꼬불하게 하는 것으로서, '日月'이 그것이다. 상형에 대한 정의는 매우 분명해서 줄곧 아무런 이견이 없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鄭樵의 『通志·文字略』에서의 "獨體爲文，合體爲字"라는 관점을 취해 상형자

가 독체자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 상형자를 여러 종류로 나누는 학자들은 적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 청나라때의 학자인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서 상형자를 독체상형과 합체상형의 두 종류로 구분했으면 단옥계와 같은 시기의 학자인 王筠도 상형자를 천지, 사람, 동물과 곤충, 식물, 기계 등 다섯 종류로 잡고 상형 겸 회의자와 상형 겸 형성자 등 변칙적 부류를 열 가지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대만대학교 교수인 서부창(2007)의 문자학 강의 교안에서 나타난 관점을 취할 것이다. 서부창(2007)에 의하면 상형자는 獨體象形, 合體象形, 變體象形을 세 가지로 나뉜다.

獨體象形이란 물체를 그림으로 그린 후 자형에 어떠한 가감을 하지 않은 순수한 상형으로 상형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이다. 보통 독체상형자를 상형자의 正例로 여긴다. 그리고 독체상형자는 또다시 천문, 지리, 인체, 동물, 식물, 복장, 궁궐, 도구에 관련된 8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日, 月, 氣, 雲, 雨, 晶, 申(電), 山, 厂, 水, 丘, 阜, 泉, 淵, 川, 田, 火, 大, 人, 女, 耳, 目, 臣, 手, 又, 左, 口, 自, 爪, 止, 牙, 心, 巳, 鳥 등등이다. 그림을 결합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合體象形이란 문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독체 상형 문자에다가 문장화 되지 못하고 그림 문자를 첨가해, 본래의 상형 문자와 다른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예를 들면, 果, 谷, 石, 車, 能, 龍, 齒, 巢, 身, 眉 등등이다. 그림을 결합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變體象形은 또, 다시 생체상형과 변체상형 두 가지로 나눈다. 생체상형이란 독체상형의 문자에 부분적인 필획을 생략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虎(호피의 무늬 호-)虎자에서 위부분만을 취하는 것이다.), 片(조각 편-)木을 둘로 나누면 오른쪽은 片(편), 왼쪽은 尙(장수장변)이 된다). 변체상형이란 독체상형의 문자에서 부분적인 필획을 변형시키거나 문자의 위치를 좌우나 상하로 바꾸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夭(어릴 요-)사람이 머리를 가우뚱하게 하고 요염하게 교태를 부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등이다. 그림을 결합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2) 지사

지사란 사물의 모양으로 본 뜰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로써

표현한 것으로 그 특징은 구체적이 아닌 추상적인 생각이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상형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한계성이므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사 문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황덕관 · 진병신(2000)에 의해 단옥제와 왕균의 학설은 지사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 데, 즉 첫째로는 지사자가 지칭하는 바가 여러 가지 물체를 포괄하는 추상적인 형체라는 사실이며, 둘째로는 지사자의 구조가 독체자이거나 다른 글자를 합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 속에는 여전히 글자로 독립하지 못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 즉 독체자에다 지사부호를 합쳤다는 특징을 개괄했다. 현대에 들어와서 지사는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 진광호(1997)에서 독체지사와 합체지사의 두 가지로, 서부창(2007)에서 독체지사, 합체지사 및 변체지사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본고는 서부창(2007)의 지사분류법을 따를 것이다.

첫째로 독체 지사란 형체에다가 어떤 다른 요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추상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지사문자를 말한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선이 된 부호로 추상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上, 一, 二, 下, |, 八, 小, 大, 爻, 乃, 入, 冂, 出, 回, 克, 凶, 文, ㄱ, 曲, ㄴ, 緝, 등이다. 옛글자를 결합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둘째로 합체 지사란 기존 문자의 형체나 부호로 해당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독체 상형이나 독체 지사의 문자에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비문자의 부호를 첨가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합체 상형과 다른 점은 합체 상형은

독체 상형에 비문자의 그림을 합한 것이고, 합체 지사는 이에 비문자의 부호를 첨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元, 示, 王, 中, 屯, 牟, 牽, 土, 嵬, 只, 畜, 尹, 父, 聿, 寸, 刃, 血, 高, 亦, 直 등이다. 옛 글자를 결합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셋째로 변체 지사란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독체 지사의 문자에 부분적인 필획을 생략하거나 변형시켜서 새로운 관련된 뜻을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변형시키는 방법은 보통 기존 글자의 필획을 좌우로나 상하로 거꾸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乏, 延, 世, 幻, 夏, 巾, 禾, 夕 등이다.



3) 회의

회의란 글자 그대로의 뜻은 '뜻을 모으다'인데 즉, 이미 이루어진 두세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회의 문자는 수차의 증형을 통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합쳐지는 글자의 필획을 일부 생략하여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상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인 鄭樵는 회의라는 것에 대해 “두 자

모(독체자)를 합치면 회의자가 되는데, 회의라는 것은 두 가지 형체가 갖고 있던 주된 뜻을 모두 가지게 되며 이를 합쳐서 글자로 만든 것이다. 이에는 두 가지 종류, 즉 같은 자모를 합친 것과 서로 다른 자모를 합친 것이 있는데, 그 주된 의미는 하나다” 고 했으며, 또 “두 자모를 합친 것이 회의자인데, 두 자모라는 것은 두 가지 형체를 말한다. 세 가지 형체를 합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예는 아니다” 고 했다. 그리고 원나라 때의 戴侗은 “何謂會意. 合文以見義. 兩人為從. 三人為眾. 兩火為炎. 三火為焱之類是也(무엇을 두고서 회의라고 하는가? 독체자를 합쳐서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人을 2개 합치면 從자가 되고, 人을 3개 합치면 眾자가 되고, 火를 2개 합치면 炎자가 되고, 火를 3개 합치면 焱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고 했는데, 이러한 해석이 정초보다 낫다. 청나라 때 段玉裁는 “會者 合也. 合二體之意也. 一體不足以具其義. 故必合二體之意以成字(會라는 것을 습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체의 의미를 합한다는 말이다. 한 가지 형체로써 그 뜻을 나타내기가 힘들 경우 반드시 두 가지 형체의 뜻을 합하여 한 글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고 했다. 그리고 王筠은 “會者合也. 合諡即會意之正解° 會意者. 合二字三字之義以成一字之義(뜻을 합한다고 한 것은 회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회의라는 것은 2자나 3자의 뜻을 합쳐서 한 글자의 뜻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 고 했다. 段玉裁와 王筠의 해석은 鄭樵나 戴侗의 해설보다 더 낫다고 하겠다.

현대에 와서 金光호(1997), 서부창(2007)에 의해 회의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즉 서로 다른 문자끼리 결합된 異體 회의와 같은 문자끼리 결합된 同體 회의가 있다.

첫째, 동체 회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문자의 자형과 자의를 결합시켜 만든 회의문자를 말한다. 二文동체는 서로 같은 두 개의 문자와 의미를 결합시켜 만든 회의문자를 말한다. 三文 동체는 서로 같은 세 개의 문자를 결합시켜 만든 회의자이다. 四文동체는 서로 같은 네 개의 문자를 결합시켜 만든 회의문자이다. 예를 들면,

二文同體

글자	『說文解字』의 권수	본뜻	구성
玨	一上玨部	二玉相合為一玨	二玉相合為一玨
雥	四上雥部	雙鳥也	二佳
𠩺	六下生部	眾生並立之貌	二生
𠩺	六下貝部	頸飾也	二貝
𠩺	七上多部	緝也，緝夕。	夕者，相繹也，故為多。
棘	七上東部	小棗叢生者	並東。

三文同體

글자	『說文解字』의 권수	본뜻	구성
𦰇	一下艸部	艸之總名也	艸中
𠩺	二下品部	眾庶也	三口
𠩺	四上雥部	群鳥也	三佳
森	六上林部	木多貌	林木
𠩺	十上犬部	犬走貌	三犬
𠩺	十下心部	心疑也	三心

四文同體

글자	『說文解字』의 권수	본뜻	구성
𦰇	一下艸部	眾草也	四中
𠩺	三上罍部	眾口也	四口

둘째, 異體 회의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문자의 자형과 자의를 결합시키는 회의문자를 말한다. 주로 二文이체, 三文이체, 四文이체로 나눈다. 二文異體란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와 뜻을 합쳐 만든 회의 문자로 회의문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三文異體는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합쳐 만든 회의문자이다. 四文異體는 네 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회의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二文異體

글자	『說文解字』의 권수	본뜻	구성
皇	一上玉部	大也	自王
苗	一下艸部	艸生於田者	艸田
琯	一上玉部	送死口中玉也	玉含, 含亦聲。
芻	一下芻部	刈草也	象包束艸之形

三文異體

글자	『說文解字』의 권수	본뜻	구성
祝	一上示部	祭, 主贊詞者	示几口。
祭	一上示部	祭祀也	示, 以手持肉。
監	八上臥部	臨下也	臥血 省聲。
坐	十三上土部	止也。留省, 土。	土所以止也, 此與留同意。

四文異體

글자	『說文解字』의 권수	본뜻	구성
夔	五下夔部	貪獸也, 一日母猴。	似人, 貞, 已止刀其手足。
暴	七上日部	晞也	日出 米
寒	七卜部	凍也	人在下, 凵上下為覆, 下有也。
廩	九下部	二敵半也	一家之居, 里八土。

4) 형성

형성이란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서로 합하여 의와 음을 같이 나타내는, 즉 표의와 표음의 기능을 함께 가진 문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것은 회의문자와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회의문자는 뜻에 따라 합쳐진 것임에 반하여 형성문자는 한쪽이 음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한자의 창제의 방법 과정상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새로운 어휘가 증가함에 따라 표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문자 창제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상형, 지사, 회의의 방법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성부를 운용하여 한자를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역사상 중국 서한나라 때 劉歆과 班固는 이를 象聲이라 했는데, 形聲이란 바로 象聲을 말한다. 동한나라 때 학자인 鄭衆은 이를 諧聲이라 했는데, 諧라는 것은 습과 같은 뜻으로, 그 뜻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고 청나라 학자인 段玉裁의 『說文注』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는 형성자라는 것이 “그 나타내는 사물을 이름으로 삼고 나타내는 소리를 서로 합친 것이다.”는 것에 대해 “事라는 것은 지사를 겸한 일과 상형의 물체를 말한 것으로, 물체라고 해도 또한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名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名이라 했고, 오늘날에는 이를 字라고 한다.’ 고 할 때의 名을 말한다. 浬라는 것은 論라는 뜻이고, 論라는 뜻은 알려 준다는 뜻이다. 그 나타내는 소리를 서로 합친 것이라는 것은 반쪽 부분은 소리를 나타낸다는 말이다..... 형성과 지사 · 상형과의 차이점은, 지사와 상형은 獨體字이지만 형성은 합체자라는 데 있으며, 회의와의 차이는 회의가 합체자로서 뜻에 치중해 있는 반면 형성자는 소리에 치중해 있다는 데 있다.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며,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며,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바깥 부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글자가 두 가지의 소리를 가진 경우도 있다. 또 亦聲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회의 겸 형성자인 경우이다. 또 省聲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의자도 아니면서 또 그 소리도 얻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글자의 생략된 모습을 소리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했다. 청나라 때 학자인 王筠은 “江에서의 工과 河에서의 可지는 모두 그 소리만을 취해 온 것으로 아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예가 가장 순수한 경우이다. 이로부터 확대해 나간다면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형성자이면서도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를 형성 겸 회의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리가 위주가 된다. 반

면 회의자이면서 소리도 함께 갖고 있는 경우를 회의 겸 형성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를 주로 삼고 있다” 고 했다. 같은 시기 학자인 王鳴盛은 “대저 『說文』에서 보이는 어떤 글자를 의미부로 삼고 어떤 글자를 소리부로 삼는다고 한 예들에서 해당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가 형성자인 경우에는 형성자이다” 고 했는데, 이를 ‘半形半聲’ 설로 볼 수 있으며, 문자 구조적인 각도에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비교적 합리적이라 하겠다.

현대 들어 중국 학계에서 주로 성부와 형부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즉, 첫째로 左形右聲인데 왼쪽은 形符이며 오른쪽은 聲符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清, 松, 城, 漁, 狸, 情, 描, 帽, 紡 등이다. 둘째로 右形左聲인데 오른쪽은 形部이며 왼쪽은 聲部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功, 饋, 救, 戰, 郊, 放, 鴨, 飄, 歌 등이다. 셋째로 上形下聲인데 위쪽은 형부이며 아래쪽은 성부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露, 花, 崗, 草, 笠, 芳, 窺, 景, 箱 등이다. 넷째로 상성하형인데 위쪽은 성부이며 아래쪽은 형부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烈, 警, 恭, 堡, 貸, 盒 등이다. 다섯째로 內形外聲인데 안쪽은 형부이며 바깥쪽은 성부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聞, 辯, 辯, 問, 悶 등이다. 여섯째로 外形內聲인데 바깥쪽은 형부이며 안쪽은 성부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圓, 關, 衷, 病, 趕, 廳, 近 등이다. 위 같은 형성자에서 左形右聲 유형의 글자 수가 가장 많고 한자 한자 형성자의 80% 정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左聲右形인데 한 6% 정도 차지한다. 다른 유형의 형성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진광호(1997)에서 형성자에 대한 부류가 특이하다고 본다. 진광호(1997)에 의해 형성자의 성부가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고 있는가에 의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눈다. 즉, 一形一聲, 多形一聲, 省體形聲, 亦聲이다.

첫째, 一形一聲으로 형성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형성자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는 단 하나의 형부와 성부만으로 결합된 것이다. 예를 들면, 禱자는 '신에게 예를 바쳐 복

을 얻는다'는 뜻으로, 신을 나타내는 형부인 示자와 이 문자의 음을 나타내는 성부 喜자로 이루어졌다.

둘째, 多形一聲으로 형성자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형부를 가진 형성자를 말한다. 이는 한 개의 형부만으로는 문자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가 없어 자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부를 더 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璣자는 '푸르고 아름다운 돌'을 뜻하며, 이에서 인식되어 '푸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璣은 玉과 石의 중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둘 다 나타내기 위해 형부로 玉자를 하나 더 가한 것이다. 玉자와 石자는 형부이고, 白자는 성부이다.

셋째, 省體형성이다. 省體 상형은 문자의 부분적인 필획을 생략시켜 본래의 문자와 형, 음, 의가 다른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부분적인 필획을 생략시키는 방법이 형성문자에도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형성문자에서는 필획을 생략시키기는 하지만, 생체 상형과는 달리 자의와 자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자형만 다른 일종의 異體字를 만드는 것이다. 省形과 省聲이 있다. 예를 들면, 悤자는 '정자의 이름'을 뜻하며, 높은 건물을 의미하는 형부 高자의 생체와 성부 宅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亦聲이다. 이것은 회의 문자에서 하나의 형부가 표의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표음의 기능도 갖거나, 형성 문자에서 성부가 표음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표의의 기능도 갖는 것을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면, 熒자는 '옥빛'을 뜻하며, 玉을 나타내는 형부 玉자와 성부 熒자의 省體로 이루어졌다.

(2)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

앞에서 말했던 듯이 이광호(1988)에 의해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신제 28자'와 새로 만든 자가 아닌 글자 39자를 합쳐서 67자라는 주장이 있는 데 표로 보이면 위와 같다.

구분	출처	구성방식	예시
신제 28자	본문	상형, 가획	ㄱ, ㅋ, ㅇ, ㆁ, ㄷ, ㅌ, ㄴ, ㄹ, ㅍ, ㅍ, ㅊ, ㅊ, ㅅ, ㅆ, ㅎ, ㅎ, ㅎ, ㄹ, ㄹ
	본문	초/재출	·, 一,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새로 만든 자가 아닌 글자 39자	본문	각자병서	ㄱ, ㅋ, ㆁ, ㆁ, ㆁ, ㆁ
		연서	봉공뎡뎡
	초성해	1상합자	ㄱ
	중성해	1상합자	가, ㅊ, ㄱ, ㅊ;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ㅠ, ㅡ, ㅜ, ㅠ, ㅡ
합자해	합용병서	ㄱ, ㅋ, ㆁ, ㆁ, ㆁ(각자병서), ㄱ, ㅋ, ㆁ, ㆁ	
	연서	ㄱ, ㅋ, ㆁ	

그럼 아래서 위 표 순서대로 육서제자원리를 결합해서 각자의 제자원리를 탐구해 볼 것이다.

1) 초성 17자: 기본자 5자, 가획자5자 및 이체자 3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나타난 초성 기본자와 가획자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초성 17자

기본자	상형 내용	가획자	이체자
ㄱ	舌根閉喉之形	ㅋ	
ㄴ	舌附上顎之形	ㄷ	ㄹ
ㅍ	ㅍ	ㅊ	ㅆ
ㅅ	齒	ㅆ	ㅆ
ㅇ	喉	ㆁ	ㆁ

초성 가획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ㅋ比ㄱ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ㄷ而ㄹ ㅍ而ㅊ ㅍ而ㅆ ㅅ而ㅆ ㅅ而ㅆ ㅇ而ㆁ ㆁ而ㆁ ㆁ 其因聲加劃之義皆同 而唯ㅇ爲異 半舌音ㄴ 半齒音ㅆ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

加劃之義焉(解例 制字解)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초성 기본자는 상형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서 육서의 '상형'의 제자 원리와 같다고 본다. 이로써 훈민정음이 그 기본자를 구성함에 그 상형의 원리를 육서의 상형에서 차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서 상형의 유형인 독체 상형, 합체 상형, 변체 상형과 비교해 보면 자음 기본자는 독체 상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초성 가획자는 기본자에다 가획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며, 획은 '聲稍厲' 뜻인데 즉 기본자의 소리보다 조금 세게 조음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기본자의 음가와 관련성이 있으니 아무래도 구체적인 의미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안명철(2006)에 의해 '木, 末' 또는 '刂' 과 같은 지사자들은 '木' '刀'의 의미와 유연성을 가지면서 선이나 점의 추가로 추상적인 의미가 추가되는데 이 점을 감안하여 결코 상형의 원리가 아니라 지사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사의 유형인 독체 지사, 합체 지사, 변체 지사와 비교해 보면 합체 지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초성 이체자는 강신항(2007)에 의해 "오직 ㅇ만은 다르다(즉 ㅇ은 ㄱ에다가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다). 반혓소리(글자) ㄹ과 반읏소리(글자) ㄷ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뜨긴 했으나 그 체(바탕으로 삼은 기본 글자)를 달리하여 획을 더한 뜻이 없다."고 한다. 이리고 보니 이체자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보아야 되겠다. ㅇ는 획을 더한 글자로 봐야 되며 반혓소리 ㄹ과 반읏소리 ㄷ는 획을 더하지 않는 글자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체자인 ㅇ, ㄹ, ㄷ 다 발음기관 모양을 본뜬 뜻을 가지고 있다. 육서 제자원리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ㅇ은 독체 상형자인 'ㅇ'에다가 "聲稍厲" 추상적인 뜻을 가진 '丨'를 더해 만들어져서 합체지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ㄹ, ㄷ는 발음기관 모양을 본뜨면서 독체지사로서 독체 상형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초칭 기본자, 가획자 및 이체자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독체 상형	육서 제자원리
자음 가획자	ㅋ ㆁ ㅈ ㅊ ㆁ ㅅ	합체 지사	
자음 이체자	ㅇ	합체 지사	
	ㄹ ㅅ	독체 상형	

2) 중성 11자: 기본자 3자, 초출자 4자, 재출자 4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나타난 중성 11자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기본자	상형내용	초출자	재출자
·	天 圓	ㅏ ㅑ	ㅓ ㅕ
丨	地 平	ㅓ ㅕ	ㅗ ㅛ
一	人 立		

관련 설명은 아래와 같다.

中聲凡十一字 ·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也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關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丨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
次下八聲 一闔一闢 ㅏ與· 同而口聲 基形則· 與一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ㅓ與一 同而口聲 其形則一與· 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ㅕ與一 同而口張其形則· 與丨 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ㅓ與ㅏ 同而起於丨 ㅕ與ㅑ 同而起於丨 ㅗ與ㅓ 同而起於丨 ㅛ與ㅕ 同而起於丨 ㅏㅓㅓ 始天地也 爲初出也 ㅓㅕ ㅗㅛ 起於丨 而兼乎人 爲再出也

먼저 기본자인 ·, 丨, 一을 살펴보자. 비록 제자해에 의해 "象乎天也", "象乎地也", "象乎人也"에서 '象'자가 나왔지만 상형자로 보이면 안 된다. 안병희(1990)에 의해 "중성자는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調音上 특징을 하늘 땅, 그리고 사람으로 상징시켜 만든 것이다. 性理學

에서는 하늘과 땅은 각각 陽과 陰, 사람은 陽과 陰을 겸한 것으로 상징되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을 중성의 기본자는 결국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사의 유형과 비교해 보면 단독의 지사문자로 어떤 다른 요소가 첨가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독체 지사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초출자와 재출자를 묶어서 살펴보자. 우선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처럼 단독의 지사문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안병희(1990)에 의해 "초출자의 경우 중성의 기본자가 둘, 재출자의 경우 기본자가 셋이 합쳐진 것이다." 중성기본자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독체지사에 해당된다고 해서 초출자와 재출자를 회의자로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초출자는 두 개 독체지사자로 새로운 음가를 가지는 합체자가 이루어지며 재출자는 초출자에다가 추상적인 'ㅣ' 혹은 '丨'를 덧붙여 새로운 음가를 가지는 합체자가 이루어졌다. 회의 개념에 의해 "글자 그대로의 뜻은 '뜻을 모은다'인데,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두세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초출자는 '二文異體會意'에 해당되고, 재출자는 '三文異體會意'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중성 기본자, 초출자 및 재출자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			
중성 기본자	·, 丨, 一	독체 지사	육서 제자원리
중성 초출자	卜, 卩, 亅, 冫	二文異體會의	
중성 재출자	𠂇, 𠂈, 𠂉, 冫	三文異體會의	

3) 초성 각자 병서자 7자, 초성합용병서 3자, 중성합용병서 4자, 초성 연서자 5자, 중성연서 2자

안병희(1990)에서 병서자, 연서자, 그리고 중성상합자, 합용자를 두고 새로운 문자가 아니란다. 세종이 창제한 새 문자는 御製序의 '新

制二十八字'나 위에 인용된 제자해의 '正音二十八字'에 비취서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이 관점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광호(1988)에서 '新制二十八字'의 성격에 대해 자형, 음가, 음소 분석을 통해 자세한 검토를 해 봤다. 이광호(1988)에 의해 훈민정음에서 나타난 '新製'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형, 가획, 합이성, 재출 만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훈민정음의 '신제 28자'는 단순히 '새로 만든 28자의 문자체계' 이지 어떤 음운체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글은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형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자형말고 음가도 같이 살펴 봐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안병희(1990)의 병서자, 연서자, 그리고 중성상합자, 합용자를 두고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는 관점을 동의하지 않고, 병서자, 연서자, 그리고 중성상합자, 합용자도 새로운 문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훈민정음에서 병서자 및 연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각자병서: ㄱ, ㄴ, ㅁ, ㅂ, ㅅ, ㅇ

全清並書則為全濁 以其全清之聲凝則為全濁也 (制字解)

各自並書 如諺語혀為舌 而혀為引 괴여為我愛人괴 ㅁ여為人愛我 소다為覆物而坐 다為射之之類 (合字解)

합용병서: ㅅ, ㅁ, ㅁ; ㄷ, ㅌ, ㄷ, ㅌ

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ㅅㅁ為地 ㅅㅁ為雙 ㅁㅁ為隙之類 (合字解)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ㅅ, ㄷ為土 ㄷㅁ為鈞 ㅁㅁ為西時之類 其合用並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合字解)

초성연서: ㄱ, ㅋ, ㆁ, ㆁ

○連書唇音之下 則為唇輕音者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 (制字解)

○連書ㄱ下 為半舌輕音 舌乍附上腭 (合字解)

중성연서: ㄴ, ㄴ

·一起〕聲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그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 (台字解)

앞에서 설명했던 육서 제자 원리를 생각하면서 먼저 각자 병서를 살펴보자. 각자병서인 ㄱ, ㄷ, ㅂ, ㅈ, ㅊ, ㅌ 00은 합체자이면서도 구성된 요소의 자형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음가 상에 약간 변해서 새로운 음가로 나타난다. 이려고 보니 각자병서는 회의자로 보아야겠다. 그리고 각자병서인 ㄱ, ㄷ, ㅂ, ㅈ, ㅊ, ㅌ 00은 같은 두 개의 자형과 음가로 결합되어 새로운 전탁음을 만들어지니 二文同體會意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합용병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합용병서인 ㅅ, ㅈ, ㅊ, ㄷ, ㄱ, ㅌ, ㅌ는 겹으로 즉 자형으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문자의 자형을 결합해서 만들어지니 異體會意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창균(1966), 안명철(2006), 김상태(2011)에서 모두 다 이런 주장을 취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 합용병서인 ㅅ, ㅈ, ㅊ; ㄷ, ㄱ, ㅌ, ㅌ에서는 어원표시와 관련된 흔적을 보이는 수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초성합용병서 경우 ㅌ(또) ㅌ리다(꾸리다)에서 'ㅅ', 'ㅈ' 각각 'ㄷ' 'ㄱ'으로, 중성합용병서 경우 'ㅎ' 발음상 [후], 'ㄷ' 발음상 [넉]으로 읽는 것은 사실이다. 이려고 보니 합용병서자에서 일반적으로 형부와 성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ㅅ'의 형부는 'ㅅ'이며, 성부는 'ㄷ'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ㅅ, ㅈ, ㅊ, ㄷ, ㄱ, ㅌ는 一形一聲 형성에 해당하며, ㅌ, ㅌ, ㅌ는 多形一聲 형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연서자를 살펴보자. 연서자는 초성연서자와 중성연서자로 나뉜다. 그런데 제자원리가 같다고 생각한다. 脣輕音字는 兩脣閉鎖音인 'ㅂ, ㅍ, ㅃ, ㅍ'에 부호 'ㅇ'을 연결시켜 호기가 마찰적으로 유출함(喉聲多)을 상형한 것인 바, 그 자형으로는 '빙, 풍, 몽, 뽕'과 같은 것은 갖추게 된다. 마찬가지로 반설음'ㄹ'보다도 호기유출양이 더 많

다(舌乍附上腭)는 것을 암시적으로 상징하기 위하여 'ㄹ'에 부호 'ㅇ'를 연결하여 'ㄹㅇ'과 같은 자형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중성연서자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즉, 'ㄹ', 'ㄹㅇ'는 복합모음을 단일의 자형으로 구성하며 그 자형의 구성요소가 원음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고 보니 육서 형성 제자원리와 같다고 생각한다. 형성의 일종인 亦聲의 개념에 의해 회의 문자에서 하나의 형부가 표의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표음의 기능도 갖거나, 형성 문자에서 성부가 표음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표의의 기능도 갖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연서자인 ㄹ, ㄹㅇ, ㄹㅇ, ㄹㅇ, ㄹ, ㄹㅇ는 모두 다 聲符와 形符를 가지고 있으며 聲符가 같은 자형뿐만 아니라 표음의 기능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ㄹ'에 있어서 성부는 'ㄹ'이며 형부는 'ㅇ'이다. 성부 'ㄹ'은 원래의 자형이 변하지 않으며 'ㄹ'의 표음 기능인 양순폐쇄음의 음가를 대부분 유지했다고 본다. 따라서 초성연서: ㄹㅇㅇㅇㅇㅇㅇㅇ과 중성연서: ㄹ, ㄹㅇ는 亦聲 형성 제자원리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병서자, 연서자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			
각자병서	ㄱ, ㄴ, ㅁ, ㄷ, ㄹ, ㄴㅇ, ㅇㅇ	二文同體 회의	육서 제자원리
합용병서	ㄴㅇ, ㄴㅇ, ㄹㅇ, ㄹㅇ	一形一聲 형성	
	ㄹㅇ, ㄹㅇ, ㄹㅇ	多形一聲 형성	
초성연서	ㄹㅇㅇㅇㅇㅇㅇㅇ	亦聲 형성	
중성연서	ㄹ, ㄹㅇ	亦聲 형성	

4) 중성이자합용자 4자, 중성일자상합자 10자, 중성이자상합자 4자

훈민정음에서 중성합용자, 상합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중성이자합용자: ㄱ, ㄴ, ㄷ, ㄹ

二字合用者 ㄱ與ㄴ同出於·故合而為ㄱ ㄴ與ㄷ又同出於 | 故合而為ㄴ ㄷ與ㄹ同出於一 故合而為ㄷ ㄹ與ㄱ又同出於 | 故合而為ㄹ 以其同出而為類 故相合而不悖也 (中聲解)

중성일자상합자: 이, 니, 리, 미, 기, 케, 피, 헤, 피, 키
 一字中聲之與 | 相合者十 이니리미기케피헤피키是也 (中聲解)

중성이자상합자: 내, 게, 배, 궤
 二字中聲之與 | 相合者四 내게배궤是也 | 於深淺闊關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使於開口也 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 (中聲解)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為琴柱 왜為炬之類 (合字解)

두 글자를 합용함에는 'ㅇ' 와 'ㅏ'가 다 같이 'ㅣ'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와'가 되고, 'ㅇ'와 'ㅑ'가 또한 'ㅣ'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ㅑ'가 되고, 'ㄱ'와 'ㄴ'가 다 같이 'ㅡ'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ㄴ'가 되고, 'ㄷ'과 'ㄹ'가 또한 같이 'ㅣ'에서 나왔으므로 어울려서 'ㄹ'가 되는 것이니 함께 나와서 같은 유가 되므로 서로 어울려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한 글자로 된 중성으로서 'ㅣ'와 서로 어울린 것은 열이니 이니리미기케피헤피키가 그것ियो. 두 글자로 된 중성으로서 'ㅣ'와 서로 어울린 것은 넷이니 '내게배궤'가 그것이다. 이려고 보니 중성 합용자, 상합자는 주로 한 가지 소리(ㅣ나 ㅣ나 ㅡ)를 중심으로 다른 聲部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中聲一字相合字 이, 니, 리, 미, 기, 케, 피, 헤, 피, 키는 'ㅣ'와 하나의 성부로 결합된 것이니 一形一聲 형성자에 해당하며 中聲二字合用字인 '와' 'ㄴ'는 각각 'ㅣ' 나 'ㅡ'와 두 글자로, 그리고 中聲二字合用字인 '과', '궤'와 中聲二字相合字인 '내, 게, 배, 궤'는 'ㅣ'와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니 多形一聲 형성자에 해당한다.

이것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중성이자합용자, 일자상합자, 이자상합자의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			
中聲一字相合字	이, 니, 리, 미, 기, 케, 피, 헤, 피, 키	一形一聲 형성	육서 제자원리
中聲二字合用字	과, 과, 거, 궤	多形一聲 형성	
中聲二字相合字	내, 게, 배, 궤	多形一聲 형성	

IV. 결론

본고는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금까지의 한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최근의 중국 육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을 다시 검토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세워 보았다. 이것은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훈민정음 제자원리와 육서의 관련성					
훈민정음 제자원리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독체 상형	상형	육서 제자원리
	자음 이체자	ㄴ, ㄷ	독체 상형		
	중성 기본자	·, , -	독체 지사	지사	
	자음 가획자	ㅋ, ㆁ, ㆅ, ㆆ,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합체 지사		
	자음 이체자	ㅇ	합체 지사		
	중성 초출자	ㅏ, ㅑ, ㅓ, ㅕ	二支異體 회의	회의	
	중성 재출자	ㅓ, ㅕ, ㅗ, ㅛ	三文異體 회의		
	각자병서	ㅑ, ㅓ, ㅗ, ㅛ, ㅕ, ㅛ, ㅓ, ㅕ, ㅗ, ㅛ	二支同體 회의	회의	
	합용병서	ㅑ, ㅓ, ㅗ, ㅛ, ㅕ, ㅛ, ㅓ, ㅕ, ㅗ, ㅛ	一形一聲 형성 多形一聲 형성		
	초성연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ㅕ, ㅛ, ㅓ, ㅕ, ㅗ, ㅛ	亦聲 형성	형성	
	중성연서	ㅓ, ㅕ, ㅗ, ㅛ	亦聲 형성		
	中聲一字相 合字	ㅑ, ㅓ, ㅗ, ㅛ, ㅕ, ㅛ, ㅓ, ㅕ, ㅗ, ㅛ	一形一聲 형성		
	中聲二字相 合字	ㅑ, ㅓ, ㅗ, ㅛ, ㅕ, ㅛ, ㅓ, ㅕ, ㅗ, ㅛ	多形一聲 형성		
	中聲二字合 用字	ㅑ, ㅓ, ㅗ, ㅛ, ㅕ, ㅛ, ㅓ, ㅕ, ㅗ, ㅛ	多形一聲 형성		

그런데 한글의 제자원리가 한자의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여 한글 창제의 독창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세종대왕

의 깊은 생각과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먼저 한 음절이 음소로 분석되어 초성자와 중성자의 합자로서 표기되는 방식은 한자와 전혀 다르다. 한글 자음 기본자의 자형은 발음기관은 본떠서 상형자로, 모음 기본자의 자형은 하늘·땅·사람 삼재 원리를 활용해서 지시자로 시작하여 각각 가획, 합용, 상용 병서, 연서 등 방식을 거쳐서 많은 우수한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 비록 조선시대 중국의 문명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중국 육서 제자원리, 운서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글 같은 기적적이고 매력적인 글자를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鄭麟趾序의 말 그대로 “開物成務之大智”가 아니면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한글의 제자원리에 당시 문자 생활의 전통으로 중국문자학의 지식이 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학자들은 중국문자학의 이론이나 지식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독창적인 한글을 만들어 내는 것을 설명하고자 할 뿐이다.

참고문헌

단행본류

- 강신항(2001). 훈민정음. 서울: 신구문화사.
강신항(2007). 수정증보훈민정음연구(7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태완(2007). 허신의 고뇌, 창힐의 문자. 전남대학교출판부
徐富昌(2007). 문자학 수업의 강의원고. 대만대학교 교수.
<http://club.ntu.edu.tw/~davidhsu/New-Character-Lecture/course.html>
전정래, 김형주(2002). 훈민정음과 문자론. 역락도서출판
진광호(1997). 문자학개론, 부산: 도서출판 만족문화.
許愼(1995). 說文解字, 中華書局.
許愼 編, 段玉裁 注(199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황덕관 · 진병신 편, 하영삼 옮김(2000). 한어문자학사. 동문선출판사

논문류

- 강규선(1999). 훈민정음 기원설 연구. 인문과학논집 제19집. 47-76.
강현규(1998). '상형이자 방고전에 대하여. 인문사회과학연구제 13권 1호. 1-10.
공재석(1968). 한글 고전기원설에 대한 한 고찰. 우리문화 2. 45-54.
김상태(2011). 훈민정음과 한자 육서의 자소론적 연구. 국어학회 제3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0-111
김완진(1983). 훈민정음 제가 경위에 대한 새 고찰. 김철준박사 회갑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353-366.
김완진(1975).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6-194.
김윤주(1984). 훈민정음 자음자와 가획의 원리. 한성어문학 3.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87-98.
김홍철(1980). 국문의 자체 및 서체발달에 미친 한자의 영향. 중국문화 제2집. 49-65.
문효근(1993). '훈민정음' 제자 원리1. 세종학연구 8호. 3-86

- 박형우(2008). 훈민정음 '상형이자방고전'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53, 153-180
- 안병희(1990).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대하여. 강신항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135-145.
- 안명철(2006).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 우리말글 38, 43-58.
- 유창균(1966). 상형이자방고전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567-586.
- 이광호(1988). 훈민정음 '신제 28자'의 성격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13호, 47-66.
- 황경수(2005). 훈민정음의 기원설. 새국어교육 제70호, 221-238.